



양현종

‘한숨 돌린’ 양현종

텍사스 마이너행 명단서 제외
4명 추가 탈락... 58명 남아
개막전 엔트리 26인에 들어야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좌완 투수 양현종(33)이 메이저리그(MLB) 입성을 향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양현종은 18일(한국시간) 텍사스 구단이 발표한 마이너리그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존 블레이크 텍사스 홍보 담당 부사장은 이날 “드

루 앤더슨, 제이슨 바르, 자렛 코튼, 루이스 오티스 등 4명의 투수를 마이너리그 캠프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스프링캠프에서 기존 메이저리거 외에도 다수의 마이너리거를 초청해 함께 훈련하며 시범경기를 소화한다. 유망주들에게 빅리그 경험을 쌓게 하고, 선수들의 경쟁을 도모해 팀 전력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있다. 각 구단은 스프링캠프를 치르다가 MLB 개막을 앞두고 여러 번에 걸쳐 선수단을 갈무리한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26명이 MLB 개막전 엔

트리에 포함된다. 텍사스는 올해 스프링캠프를 72명으로 시작했고 지난 13일 10명의 선수를 마이너리그로 보냈다. 그리고 이날 4명을 추가로 탈락시켜 58명이 남았다. 앞으로 절반 이상이 집을 싸야 한다. 양현종의 살아남은 경쟁은 계속된다. 양현종은 올 시즌을 앞두고 텍사스와 스피릿 계약을 했다.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포함되면 연봉 130만 달러를 받지만, 마이너리그로 강등되면 연봉 조건이 크게 떨어진다. 양현종은 올해 시범경기에서 두 차례 등판해 3이닝 3피안타(1홈런) 1실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모리뉴, 손흥민 국대 차출 반대?

토티넘 감독 기자회견
“손, 부상에 주말 경기 출전 불확실
클럽 못 뛰면, 나라 대표로도 못 뛰어”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친 손흥민(29)에 대해 소속팀 토티넘(잉글랜드)의 조제 모리뉴 감독은 얼마나 더 결정할지 알 수 없다면서도, 국가대표팀 차출엔 난색을 보였다. 모리뉴 감독은 디나모 자그레브(크로아티아)와의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을 앞둔 18일(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복귀 시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모르겠다. 하지만 물론 이번 경기엔 뛸 수 없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15일 아스널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했으나 전반전 도중 왼쪽 허벅지 뒤쪽을 붙잡고 주저앉은 뒤 더 뛰지 못했다. 이후 발표된 한일전 대표팀 소집 명단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언론에선 다가오는 주말 애스턴 빌라와의 리그 원정 경기에 복귀 가능성이 제기돼 25일 요코하마에서 예정된 일본과의 평가전 출전 가능성도 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토티넘은 이번 주말까



손흥민(왼쪽)과 모리뉴 토티넘 감독

흥민의 대표팀 차출 관련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모리뉴 감독은 “선수에게 부상이 있다면, 친선 경기든 공식 경기든 뛸 수 없다”면서 “다음 주에 손흥민이 여전히 부상 상태라면 대한축구협회에 그가 거기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대한축구협회에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가 클럽을 위해 뛸 수 있다면, 나라를 대표해서도 뛸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 내용만 보면 차출 여부에 대한 즉답을

내놓진 않았는데, 크로아티아로 떠나기 전 모리뉴 감독의 코멘트라며 구단 홈페이지에 실린 글엔 한층 또렷한 어조로 손흥민의 일본행을 원치 않는 마음이 표현됐다.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 뛸 가능성이 전혀 없고, 주말 경기 출전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하며 특히 “그가 나머지 휴식기에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대표팀 차출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멩덴, 시즌 기대되네

KIA-KT 연습경기 4이닝 무실점...팔색조 변화구·위기관리 돋보여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대니얼 멩덴(28)이 성공적으로 첫 실전 피칭을 끝냈다. 멩덴이 18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KBO리그 첫 실전에 나섰다. 선발로 등판한 멩덴은 4이닝 동안 51개의 공을 던졌고, 3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1회 선두 타자 박경수에게 좌익수 쪽 2루타를 맞은 뒤 1사에서 활재군에게 볼넷도 허용했지만, 강백호와 조일호 앞문테를 연속 삼진으로 잡고 무실점으로 이닝을 끝냈다. 2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멩덴은 3회 2사에서 연속안타를 맞았지만, 강백호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으며 위기 관리 능력도 보여줬다. 직구 최고 구속 148km를 기록한 멩덴은 커터, 투심,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를 구사하면서 실



엄스 감독의 지휘아래 ‘건강’에 초점을 맞춰 천천히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 감각 점검에 나섰다. 제구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첫 실전에서 4이닝을 소화하며 개막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애런 브룩스와 KIA의 새로운 원투펀치를 형성하게 된 멩덴은 윌리엄스 감독의 지휘아래 ‘건강’에 초점을 맞춰 천천히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뮌헨·첼시, UEFA 챔스 8강 합창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첼시(잉글랜드)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에 합류했다. ‘디펜딩 챔피언’ 뮌헨은 18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시즌 UCL 16강 2차전에서 에리크 막심 추포모팅의 결승골을 앞세워 라치오(이탈리아)에 2-1로 이겼다. 1차전에서 4-1로 대승한 뮌헨은 이로써 합계 6-2로 크게 앞서며 준준결승에 올랐다. 뮌헨은 UCL 8강 최다 진출 기록을 19차례로 늘렸다. 뮌헨이 전반 33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연합뉴스

앞서 뮌헨의 코너킥 상황에서 라치오 베아트 무리키가 레온 고레츠카를 페널티지역 안에서 넘어뜨려 파울이 선언됐다. 뮌헨은 후반 28분 다비드 알라바의 침투 패스를 받은 추포모팅이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오른발로 슈팅해 2-0까지 달아났다. 라치오는 후반 37분 프리킥 상황에서 나온 파르코 파롤로의 문전 헤더로 한 점을 만회했으나 승부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첼시는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16강 2차전에서 2-0으로 이겨 1, 2차전 합계 3-0으로 8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골 샷 틈 없을걸?” 17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과 라치오의 경기에서 라치오의 모하메드 파레스가 프리킥 수비벽 뒤로 드러누워 낮게 차는 슛을 견제하고 있다. /연합뉴스